

2. 독학재수란?

1. 독학재수란?

독학재수란 말 그대로 독학으로서 재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학재수의 장점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학업능력에 따라 맞춤형 공부가 가능하다. 현재 독학재수가 부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수종합반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재수종합반의 비효율성은 인강강사와 확연히 실력이 비교되는 학원강사들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며, 공부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자습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독학재수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하던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외부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다보면 나태해져서 공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방향을 설정해야하는 것이 위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학재수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보자.

1) 독학재수의 장점

1.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2. 인강을 마음껏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
3. 충분한 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실력 없는 강사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지 않아도 된다.
5. 개별적 학업능력에 따른 맞춤형 공부가 가능하다.

2) 독학재수의 단점

1. 스스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다.
2. 잘못된 공부방법을 설정할 위험성이 있다.
3. 외로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
4. 훈계를 들으며 마음가짐을 달리해야할 상황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지 못한다.

2. 독학재수의 종류.

독학재수는 공부장소에 따라 크게 집, 도서관 혹은 독서실, 독학재수학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독학재수학원을 중심으로 집독재, 도서관 혹은 독서실독재를 적절히 시기에 따라 병행할 것은 권한다. (독학재수학원을 중심으로 다니다가 한 번씩 슬럼프가 찾아온다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적절히 집과 독서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1) 집

흔히 집독재로 불린다. 집독재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인강을 듣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도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있는가하고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한 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유지하기 힘든 공부방법이다. 밥 먹고 TV를 10분만 보려고 한 것이 3시간이 된다는가, 게임을 잠깐 하려고 했던 것이 밤샘이 된다는가 등의 문제가 많다. 차라리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재종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2) 도서관 혹은 독서실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기에 집독재보다는 나은 공부방법이다. 개방감을 원한다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

<p>다면 독서실이 낫다. 하지만 이 또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주위에 따끔한 충고를 해줄 만한 멘토가 없다면 슬럼프에 장기간 빠질 위험이 있고,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없다면 교과내용에 대한 질문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p> <p>도서관은 실전모의고사 시기에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데 낮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면 원래 공부하던 장소에서 시험을 치던 것보다 점수가 확 떨어지는 학생들이 여러 도서관을 옮겨 다니며 실전모의고사를 연습하면 실전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3) 독학재수학원</p> <p>위에서 기술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물론 지금 기술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이므로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독학재수학원은 위에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독학재수학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생활관리와 교과관리라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독학재수학원이 잘 된다고 하니 기존에 망했던 학원들이 간판만 바꿔서 독학재수학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학재수학원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활관리만 받으려고 비싼 독서실에 가지 말자.)</p>
<p>3-1) 생활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관리 전담 선생님이 있는가. 2. 벌점제를 시행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는가. 3. 지각, 조퇴, 결석이 자유롭지는 않은가. 4. 따끔한 충고를 해줄만한 선생님이 계시는가. 5. 공부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한 시설이 갖추어진 학원인가. 6.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가.
<p>3-2) 교과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신 인강 정보를 추천해줄 수 있는 독학재수학원 선생님이 있는가. 2. 자신의 공부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줄 담임 선생님이 있는가. 3. 독학재수의 경험이 있는 멘토진이 있는가. 4. 입시 및 논술 관리가 제대로 되는 학원인가. (대부분의 독학재수학원은 독서실과 다름 없다.) 5. 명문대생을 배출한 실적이 있는 학원인가. 6. 교과 질문 답변이 가능한 선생님이 항시 상주하고 계시는가. (국영수탐 모두)
<p>TIP 독학재수학원 방문 상담 시 검토해볼 만한 사항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대부분 독학재수학원은 관리 실장 1~2명이 생활관리만 한다. 질문은 질문지를 통해서 혹은 1~2시간 다른 선생님을 빌려와서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2. 강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선생님이 실제로 오시는지 물어본다. (대부분 독학재수학원은 인근의 학원에서 선생님을 잠시 빌려오는 경우가 많다.) 3. 선생님들의 나이대를 살펴본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독학재수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99%이다.) 4. 국어 상담 시 마르고 닳도록을 하루에 얼마나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교재인 이겨놓고 싸우는 법에 대한 활용법을 물어본다. (마르고 닳도록은 아주 널리 알려진 책인데 이 책에서 하루에 반회씩 풀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나 부교재의 활용법조차 모른다면 그 선생님은 독학재수학원의 국어 선생님이로서의 자격이 없다.)

3. 교과정보

국어

1. 과목특성

2017학년도 수능에서 국어과목은 개정이 된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기존에 A/B형으로 나뉘서 치던 것을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A형을 공부했던 이과학생들은 한글 맞춤법과 어문규범, 중세국어와 고전문학의 원문해석은 추가로 공부해야할 것이다. 크게 어렵다거나 양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B형의 시험형태로 모두 통합되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면 된다.

국어영역에서 공부해야할 부분은 크게 화작, 문법, 문학, 비문학으로 나뉜다.

화작은 기존에 듣기가 대체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원리나 공부해야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로 화작은 인강을 듣기보다는 기출을 풀며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강은 듣지 말자. 그리고 화작에서 지문부터 봐야할지, 문제부터 봐야할지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험에 의하면 문제부터 보는 것이 좋다. 화작은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부터 보고 논점을 생각하며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중간 중간에 문학과 비문학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화작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등 중요시험 전에는 새로운 화작 문제를 최소 한 세트는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 때 EBS연계교재 중 화작 부분을 풀거나 새로운 모의고사를 사서 활용하면 좋다. (많은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 시기에 모의고사의 퀄리티를 따지곤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문제를 접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생소할수록 실전에는 도움이 된다.)

문법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강을 듣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학생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인강을 들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윤희정의 나비효과는 강의 특성상 문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서는 문법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 어차피 다른 사설 강의를 들어야 된다. 따라서 전형태의 문법 올인원이나 박광일의 따옴표가 괜찮은 선택이다. 그리고 문법은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암기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어떠한 문제집을 푸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마달을 통해 적용해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마달은 회차를 기준으로 기출을 모아뒀는데,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5~6개의 문법문제 중에 실질적으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법문제는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달처럼 회차 별로 모아둔 문제집을 통해서 문법을 확실히 잡기가 힘들다. (만약 첫 날 반회를 풀었을 때 모든 문법문제를 다 맞았다면 다음 문법 문제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보완하려면 삼일 째 되는 날에나 가능하며, 이때도 얻을 수 있는 것은 1~2개 일 것이다.) 차라리 매삼문법이나 기출의 고백으로서 문법에 대한 지식과 적응력을 한 번에 갖춘 후 뒤에 마달과 이겨놓고 싸우는 법으로 이

우도 꽤 있으므로 대성 마이맥에서 판매하는 박광일의 친절한 EBS Full-E라는 책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문학작품 하나를 끝낼 때마다 네이버에서 그 문학작품을 검색해서 배경지식을 채우는 것도 좋다. (귀찮더라도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실전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는 가장 나중에 푸는 것인데, 이 시기까지 이러한 성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출풀이는 버리고 실전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 [10월 하순] 지금까지 기출과 EBS를 분석한 결과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 그것을 계속 잡고 있는다고 하여 성적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실전모의고사를 통해 여러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능력 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전력을 키우도록 하자.

표로 정리하기

고전문학		문법 이론		문법 적용		문학 이론	
고전문학 강의 아무거나	->	전형태 문법올인원	->	기출의 고백 국어 문법	->	윤혜정 개념의 나비효과 (15강 문학까지만)	->
OR		OR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시가 (끝날 때 까지 20분 투자)		이근갑 문법		OR			
		OR		매삼문			
		박광일 따옴표					
문학 적용		비문학 이론		비문학 적용		전 범위 기출 풀이	
기출의 고백 문학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기출의 고백 비문학	->	마르고 닳도록	->
		OR					
		나쁜국어 독해의 기술					
EBS 병행		실전모의고사					
EBS 연계교재 (문학 주력)	->	국가대표 모의고사					

3. 김동욱(대성마이맥)			
<p>다른 인강강사들이 국어영역에서 문제풀이 스킬이나 개념 정리를 위주로 하는데 반해, 김동욱은 철저히 이해위주의 강의를 한다. 그의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력'이다. 항상 첫 강의에 "국어영역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강의를 지문 분석에 할애하며 문제 풀이에 쓰는 시간은 다소 적다. 이런 강의스타일을 두고 '책 읽어주는 남자 - 더 리더'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기에 문학영역에서는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편이다. (잠이 온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정하듯 근본적 독해능력이 중요한 비문학 영역에서는 감히 따라올 자가 없는 강사이다. 킬러콘텐츠로는 '이것이 비문학이다!'라는 강의가 있다.</p> <p>[지문부터 충실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 보여주기에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보기를 먼저 분석하고 지문을 읽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p>			
강의목록			
종합	국어 이렇게 공부한다!	이것이 국어다!(기본)	국어의 절정(심화)
	시수 - 18강 강의 - 55000원 교재 - 10000원	시수 - 17강 강의 - 60000원 교재 - 12000원	시수 - 20강 강의 - 78000원 교재 - 13000원
문학	이것이 현대시다!	이것이 산문문학이다!	이것이 고전시가다!
		시수 - 11강 강의 - 45000원 교재 - 9000원	시수 - 10강 강의 - 39000원 교재 - 11000원
비문학	이것이 비문학이다!		
	시수 - 25강 강의 - 83000원 교재 - 13000원		
문법	이것이 문법이다!		
	시수 - 15강 강의 - 60000원 교재 - 15000원		
EBS	E것이 연계다!		
Killer Contents - 이것이 비문학이다!			
평가	총 강의 시수 25강. 근본적 실력향상을 강조하기에 처음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곰이 동굴에서 100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기출문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추천 점수	A0		
추천 대상	1. 기출로써 국어 독해력의 근본적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 2. 문제풀이 스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모의고사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학생		

3. 인강 정보	
① 2016학년도 수능 대비 인강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이 점 참고할 것.	
② 음영 표시된 강의는 다른 강의에 비해 추천할만한 강의!	
③ 단어는 앞서 말했듯 인강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듣는다면 최원규의 단어 인강을 듣도록 하자.	
④ 듣기도 인강 안 들어도 된다. 그냥 연계교재에 있는 듣기에나 충실하도록 하자.	
⑤ 굳이 몰라도 되는 강의는 제외시켰다.	
⑥ 강의 가격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스카이에듀 0원 프리패스 정책 이후로 다른 인강 사이트들도 여러 상품들을 개발했기에 하나의 강의 가격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냥 교재와 부교재 가격 정도만 눈으로 보며 넘어가면 된다.	
영어	
1. 이명학(대성마이맥)	2. 심우철(이투스)
3. 이충권(메가스터디)	4. 김기훈(메가스터디)
5. 최원규(이투스)	6. 로즈리(스카이에듀)
7. 고정재(대성마이맥)	8. 은선진(대성마이맥)
9. 전홍철(이투스)	10. 김정호(이투스)
11. 조은정(스카이에듀)	12. 상변(비타에듀)
13. 주혜연(EBS)	

3. 이충권(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전략과 상승의 영어. 제우스. 2015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1타 강사였던 김기훈을 제치고 1타 강사에 오르게 되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김기훈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 사건. [사건으로 이충권이 김기훈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량진 전타임 마감의 경력 때문이 아닐까싶다. 학생들의 성적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은 노량진에서 경력을 쌓아왔기에 인강에서도 이 점이 잘 발휘된 듯 싶다.]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영어계의 신승범이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보면 길긴 길다. 이충권 풀커리를 탈 학생은 딴 것은 하지말고 이충권 커리만 따라가길 바란다. 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효율도 떨어진다.] 하지만 한수위 시리즈만 골라서 듣는다면 실제로는 다른 강사들과 강의 시수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한수위 영문법은 다른 강사의 문법강의에 비하면 굉장히 길긴 길다.] [복습해야할 내용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이충권의 강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기 때문이다.]

이충권의 강의는 크게 '한수위'시리즈와 '한판승'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 '한수위'가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영어영역을 아우르는 강의들 앞에 붙는 타이틀이라면 '한판승'은 상위권을 위한 심화강의들 앞에 붙는 타이틀이다.

경상도출신답게 거친 말투와 화법을 구사한다. 그리고 강의 중 재미를 위한 욕설이 꽤 있는 편이다. [1타가 된 이후에는 굉장히 자제하는 편이기에 이충권 강의에 욕이 많다는 말을 듣고 듣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어찌다가 재미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욕을 하는 수준.]

강의 스타일은 굉장히 실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위주의 딱딱한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만을 암기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강의 스타일은 국어 강사인 박광일과도 흡사하다.]

쓴 소리도 많이 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강사이기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충성도는 굉장히 높은 편.

[이충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충권의 커리만 따라간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 아닐까.]

강의목록	
어법	한수위 영문법
	시수 - 29강 (2250분)
	강의 - 127000원
	교재 - 17000원 부교재 - 10000원
구문	한수위 구문론
	시수 - 22강 (1800분) 강의 - 106000원 교재 - 17000원 부교재 - 10000원
독해	실전구문 한판승
	시수 - 24강 (2250분) 강의 - 127000원 교재 - 14000원
독해	한수위 리딩아트
	시수 - 27강 (2340분)
독해	실전독해 한판승
	시수 - 22강 (2250분)

생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꼭 인강으로 해결해야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문과는 그렇고 이과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과는 기존에 비해 확률과 통계에서의 난이도와 분량이 상승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개정이 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기존과 아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교육과정이 달라졌으므로 현역들은 기존 교육과정 하에서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이들도 아리송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본인의 현역 때를 떠올려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학1부터 다시 공부해야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강 강사들이 문과는 수2~확통, 이과는 미적분2~기백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오픈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재수생들이 새롭게 숙지해야할 내용을 강의 중간에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괜히 수학1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재미없게 만드는 미련한 짓이다. 여기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인강 수강 시 알려주는 새로운 개정사항을 정리할 노트를 만들어 기록하고, 추후에 발췌독을 할 목적으로 얇은 개념서를 구비하여 계속 찾아보는 것이 될 것이다.

재수를 결심했다고 해서 기존의 책들을 버리지는 말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 후의 문제집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책들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정리!	
1. 문과는 확률통계에서 꽤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이과 또한 확률 통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재수를 결심했다면 확률과 통계부터 끝내도록 하자. (수학2의 경우에는 2월 까지는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능에 13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강의를 짤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공부에서 인강을 꼭 들어야한다는 법칙은 절대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학의 경우에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 혼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부하기보다는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3. 재수 초반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괜히 수학1부터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지 말자. 어차피 인강을 들으면 새롭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 정리해줄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인강 강사의 필기를 정리할 노트를 구비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중간 중간에 찾아볼 수 있는 얇은 개념서를 구비해서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자.	
4. 다들 혼란스럽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수학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므로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자.	

1. 2017학년도 수능 수학 개정사항 정리			
1) 과목의 명칭 변경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구분	과정	과목	과목

1. 정승제(이투스)

전국구 1타 수학강사. 수포자들의 구세주. LG덕후. 스팸마까스띠뽀뽀. [수업 중 입을 풀기위해 내는 기괴한 소리] 분필브레이커. 굉장히 푸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수업도 재미있는 편. 막강한 네임을 자랑하는 신승범과 한석원도 정승제보다는 수강생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는 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승범과 한석원에 비해 수강생들의 등급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수포자들의 구세주로 불리는 만큼 아주 상세하고 쉬운 풀이를 지향한다. 기본강의인 '개때잡'은 모든 등급이 들어도 될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은 편. 하지만 정승제가 수포자의 구세주라는 타이틀로 떴기 때문에 상위권학생들과 이과생들에게는 조금 외면을 받는 편. [수포자는 대부분 문과에 있기 때문] 정승제도 이 점을 알고 있고 계속 이 점을 보강하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다루거나 해설을 대충하면 중하위권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그래서 결국 중하위권을 선택한 듯하다.]

강의 자체가 중하위권도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강의를 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아주 강조한다. 수학을 못하는 것은 머리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복습법으로 5단계 복습법을 제시한다. 음, 그런데 이 5단계 복습법이 꽤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그냥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복습을 하면 된다. 3-6등급은 괜히 남들이 신승범, 한석원을 듣는다고 따라 듣지 말고 정승제의 강의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괜히 1타 강사가 아니다. [운영하는 독재학원의 수백 명의 학생들 중 2/3이상은 정승제를 듣는 것 같다. 절대로 오르비에서 평가절하 당할 강사가 아니다.]

강의목록

무료강의	강의명	시수	강의/교재
	함수특강	80분씩 총 8강	무료
공간도형 특강	90분씩 총 17강	무료	
통계 특강	90분씩 총 8강	무료	
삼각함수 특강	60분씩 총 6강	무료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	60분씩 총 7강	무료	
고등수학	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수학		
	시수 - 27강 (60분씩)		
	강의 - 75000원		
교재 - 8000원			
개념	개때잡		
	강의명	시수	강의/교재
	개념때려잡기 수학 I ①행렬과 그래프	90분씩 총 8강	62,000/34,000
	개념때려잡기 수학 I ②지수와 로그, 지수로그함수	90분씩 총 12강	85,000/34,000
	개념때려잡기 수학 I ③수열, 수열의 극한	90분씩 총 22강	105,000/34,000
	개념때려잡기 미적분과통계 ①극한, 미분법, 적분법	90분씩 총 24강	117,000/32,000
개념때려잡기 미적분과통계 ②확률, 통계	90분씩 총 12강	74,000/32,000	

	[1~3등급 추천][수학] 2016 New 파렙 (상) + 복생	12강	59,000/14,000
	[1~3등급 추천][수학] 2016 New 파렙 (하) + 복생	10강	59,000/14,000
	[1~3등급 추천][미적분과 통계기본] 2016 New 파렙 + 복생	19강	65,000/14,000
	[1~3등급 추천][수학II] 2016 New 파렙	15강	55,000/20,000
	[1~3등급 추천][적분과 통계] 2016 New 파렙 + 복생	10강	42,000/20,000
	[1~3등급 추천][기하와 벡터] 2016 New 파렙 + 복생	10강	42,000/20,000
최고난도 문제풀이	SJR 파헤치기		
	강의명	시수	강의/교재
	[A형] 2015 SJR 파헤치기	16강	79,000
	[B형] 2015 SJR 파헤치기	16강	79,000/6,000
Killer Contents - 줍.수, 파렙			
평가	<p>일단 줍수는 X밥들의 수학의 줄임말로 일단 그 느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스럽다. 수포자들을 위한 강의임을 강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강의의 특성은 기초적, 반복적이다. 수포자들이 기출과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개념을 충실히 다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수포자들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더 주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개때잡, 개짱수, 줍.수]</p> <p>그리고 파렙은 줍수를 들어서 개념을 체득한 학생에게 기출 문제풀이를 해주는 강의인데, 21,29,30번을 다른 강사들처럼 새로운 발상으로 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푸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이 왜 틀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는 편이다. 수학적 재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딱 맞는 강의.</p>		
추천 점수	A0		
추천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3-6등급의 문과학생들 중 기본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싶은 학생과 기출 문제풀이를 실용적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 스카이에듀 프리패스를 결제한 학생 		
공정적 강의 평가	<p>평소 귀찮아서 수강후기 같은 거 거의 안쓰는데 방금 샅샅이 강의 듣고 마음 깊이 감명받아서 씁니다. 15수능 수포해서 6등급입니다. 6월은 3등급</p> <p>*장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고 나면 까먹게 되는 개념 암기 위주 강의니 시험장 가서 필수로 써먹어야 하는 딱 알아야 하는 개념만 간략하게 가르쳐 주심. 점쟁이십니다. 문레기 극딜 하면서 왜 네가 문제를 못 푼건지에 대해 원인을 말해 주시는데 그 케이스에 거의 90퍼센트 적중합니다...(TT) 		